



NEW WORDS

☐

☐

한국어감추기

<input type="checkbox"/>	1. grandson	손자	2. shepherd	양치기	3. nearby	근처에 있는
<input type="checkbox"/>	4. get rid of	제거하다	5. goat	염소	6. blood	피
<input type="checkbox"/>	7. sheep	양	8. raise	기르다	9. healthy	건강한
<input type="checkbox"/>	10. recognize	인식하다	11. disobey	불복종하다	12. destroy	파괴하다

NEW EXPRESSIONS

☐

☐

한국어감추기

<input type="checkbox"/>	1. be ruled by ~	~에 의해서 지배당하다	2. a terrifying dream	끔찍한 꿈
<input type="checkbox"/>	3. the ruler of Persia	페르시아의 지도자	4. right away	곧바로
<input type="checkbox"/>	5. be concern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6. passing through	~를 지나가는

READING

☐

☐

Reading 1	Babylonia was the strongest empire in Mesopotamia. The Persian tribes were ruled by a man named Astiz. He was not very wise.
Reading 2	One night, Astize had a terrifying dream. It was a dream of his young grandson growing up to kill him and become the ruler of Persia. Waking up from sleep, he ordered his servant Harpagus. " Take my grandson to the mountain and kill him right away. " He was concerned about the baby as he was taking him to the mountain.
Reading 3	He called the shepherd who was nearby. " The king wants to kill this baby. Get rid of the baby! " The shepherd took the baby and ran to his wife. He passed a baby to his wife, and with goat’s blood on his hands, he ran to Harpagus. " I did what you said! "
Reading 4	When Harpagus left, the shepherds named their baby Cyrus and raised together in their home. Cyrus grew into a tall, healthy young man. One day, the shepherd went down to town with Cyrus to sell the sheep. At that time, the king of Persia, Astize, was passing through the town. Astize saw the young man selling the sheep and recognized him as his grandson.
Reading 5	That evening the king called his servant Harpagus. " You have disobeyed me! " The king tried to kill both him and his family. Harpagus ran to the mountain and met Cyrus and said. " If you want to be the king of Persia, I can help. " It is Cyrus II, who destroyed the Babylonian Empire.

해석

Reading 1	바빌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강한 제국이었다. 페르시아 부족들은 아스티즈라는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는 현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Reading 2	어느 날 밤, 아스티즈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 그의 어린 손자가 자라서 그를 죽이고 페르시아의 지배자가 되는 꿈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그의 신하 하르파구스(Harpagus)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내 손자를 산으로 데려가서 죽여라.” 그는 아기를 데리고 산으로 가면서 계속 고민했다.
Reading 3	그는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던 양치기를 불렀다. “왕은 이 아기를 죽이기를 원한다. 네가 아기를 없애라!” 양치기는 그 아기를 데리고 아내에게 달려갔다. 그는 아내에게 아기를 맡기고 염소 한 마리를 죽여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하르파구스에게 달려갔다. “당신이 말한 대로 했소!”
Reading 4	하르파구스가 떠나자 양치기 부부는 아기의 이름을 ‘키로스(Cyrus)라고 짓고 그들의 집에서 키웠다. 키로스는 키가 크고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다. 어느 날, 양치기는 키로스와 함께 양을 팔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다. 때마침 페르시아의 왕 아스티즈가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스티즈는 양을 팔고 있는 젊은이를 보자마자 자신의 손자임을 알아보았다.
Reading 5	그날 저녁 왕은 그의 신하 하르파구스를 불렀다. “내 말을 거역했구나!” 왕은 그와 그의 가족을 모두 죽이려고 했다. 하르파구스는 산으로 도망가 키로스를 만나 말했다. “당신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싶다면 내가 도와주겠소.” 그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키로스(고레스) 2세이다.